



“반갑다 야구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2026프로야구 KBO리그 시범경기가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려 KIA타이거즈와 SSG랜더스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KIA타이거즈의 시범경기는 홈 4경기를 포함해 모두 12경기 진행되며 정규 시즌은 오는 28일 개막한다. /조영권 기자

## ‘12·29 참사 부실 수습’ 관계자 엄중 문책 지시

李대통령 “방치 경위 철저히 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서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참사 15개월 만에 뒤늦게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된 경위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6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주항공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잔해물 추가 조사에서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이 새롭게 수습됐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도 발견됐다.

이 대통령은 1년 넘게 유해가 방치되다 뒤늦게 수습된 데 대해 “아직도 비탄에 빠져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한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어 여전히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 역시 철저히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수석은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레이스 돌입

### 6·3 지방선거 D-82

이게호 출마 포기로 ‘7파전’ 점화  
후보별 기호·조별토론 대진표 확정  
A조 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  
B조 정준호·신정훈·이병훈 맞대결  
내일 경선후보 온라인 합동 연설회  
17-18일 토론...19-20일 예비 경선



번 이병훈 호남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이다.

오는 19-20일 예비경선을 앞두고 17일 (A조)과 18일 (B조) 이들 간 열릴 조별 토론 대진표도 추첨으로 결정됐다.

A조는 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기호 순), B조는 정준호·신정훈·이병훈(기호 순)으로 각각 구성됐다.

민주당은 당초 총 8명의 경선 후보를 4명씩 나눠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게호 의원이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A조 4명, B조 3명으로 나눠 조별 추첨을 진행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A조에 김영록 지사, 강기정 시장 등 현직 단체장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이름을 올린 민형배 의원, 전남 동부권을 기반으로 한 주철현 의원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A조 토론이 사실상의 본선 경쟁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MBC에서 열릴 합동토론회는 A조 17일 오후 5시10분-7시5분, B조 18일 오후 5시10분-7시5분으로 예정돼 있어 후보 별 정책·비

전 검증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4일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 합동연설회’를 연다.

합동연설회, 조별 토론회에 이어 19-20일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을 통해 2명을 컷오프하고 5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경선은 4월3-5일 ‘권리당원 50%+시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본경선에서는 기존 시민공천배심원제 대신 투표권이 없는 ‘정책배심원제 권역별 심층토론회’가 도입된다. 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정책배심원은 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등 3개 권역(순서 무작위 추첨)에서 폐널 토론과 즉문즉답 형식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한다.

현 경쟁 구도를 감안할 때 본경선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본경선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결선투표는 4월12-14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치면서 탈락한 후보들이 1·2위 후보 중 누구와 연대할지, 합동연설회 여부에 따라 민주당 경선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합동연설회를 둘러싼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 일찌감치 각 후보 진영 간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합동연설회와 조별 토론회를 거치면서 각 후보들의 장·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1차 관문인 예비경선이 끝나면 합동연설회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 Today

개강대학가교재 불법 복제 ‘여전’	6면
동인 선생 역경강좌- 제50강 ‘지천태’	15면
광주FC, 내일 오후 전북과 홈 맞대결	16면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달 반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Island, Connecting the Ocean and the Future

전라남도 JeollaNamdo  
여수시 YEOSU CITY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2026.9.5.토 - 11.4.수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여수세계섬박람회장, 개도, 금오도 일원